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저수지 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 낚시 및 상행위 금지’안내 실시

한태욱 기자 amenhan@hanmail.net

등록 2026.04.22 17:58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대야제 등 48개소 관할 저수지 대상으로 ‘무단 낚시 및 상행위 금지’ 제도 활동을 본격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봄맞이 행랑객 및 낚시객의 저수지 방문이 잦아짐에 따라 익사 사고를 비롯한 기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판 정비, ▲현수막 게시, ▲마을 안내 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방문객의 경각심을 높였고, 기타 금품수수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상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을 40여 개소 이상의 저수지에 집중 설치하였다.

특히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저수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좌대 및 보트 사용, 낚시터 매매 등 무단 행위를 점검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였다.

더불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인명구조함, 안전펜스, CCTV 와 같은 안전대책시설의 상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저수지 내 낚시수영 등 안전사고에 유의, 물품판매 등 상행위를 통한 금품 수수가 금지됨”을 거듭 강조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